"캄보디아 우물파기는 아이들 꿈 샘솟게 하는 것"

♥ 2014 희망을 주는 사람들 ③ 서광주로타리클럽 김종천 회장

이주여성 친정 방문 돕고 회충약·학용품 전달 기뻐
10일 출국 정수기 지원도

"어려운 주민들에게 희망을 샘솟게 할 수 있는데 그만둘 수 없잖아요?"

김종천(52) 서광주 로타리클럽 회장의 얼굴에는 캄보디아 주민을 위한 우물 지원 사업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이 때문인지 그는 10일부터 캄보디아에서 진행하는 '우물 파 주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루에도 여러 차례 세부 일정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서광주 로타리클럽 회원들과 캄보디아 주민들을 위한 우물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했다. 결혼한 뒤 국내에 들어와 5년 동안 살면서 고향을 찾지 못한 이주 여성들을 가족들과 만나도록 돕는 '엄마찾아 캄보디아 원정대' 행사를 하면서다.

당시 카이양렝(여·24)씨를 캄보디아에 있는 가족과 만나게 한 뒤 잠시 머물면서 스마이띠앙, 프로 맛다이 지역에 우물을 두 개 판 이후로 '끝까지 파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안전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해 우물을 팠는데, 쏟아지는 지하수에 온 마을 사람들이 춤을 추며 기뻐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고 회상했다.

캄보디아는 '물부족' 국가가 아니다.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없는 국가다. 깨끗한 물을 구하기 위해 물지게를 지고 몇 ㎞를 오가며 물을 날라야 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 아이들도 물 당번을 해야 한다.

김 회장이 "올해는 뜨마깡·쁘레이비 초등학교 2곳에 우물을 팔 것"이라고 했다. "초등학교에 우물을 파면 물 지게를 지고 오갈 시간에 학교를 찾을 아이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만큼 공부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갖게 되지 않겠냐." 김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물 파주기'가 아이들에게, 마을 주민들에게 어려운 삶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계기를 심어줄 수 있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이왕 하는 것, 우물 파주기 뿐 아니라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기도 설치해주기로 했다. 옷가지며 학용품, 의약품 등 300만원 상당의 선물도 챙겼다.

김 회장은 "캄보디아를 찾을 때마다 경비가 1000만원 이상 들어가지만 국제로타리클럽 3710지구와 회원 후원이 줄을 이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비참한 삶으로 미래 희망을 갖는 것조차 포기한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희망의 싹을 틔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종천 서광주로타리 클럽회장이 광주시 북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는 10일 캄보디아 출국을 앞두고 우물파주기 등 봉사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유산 절반은 배우자 몫으로 우선 배분

법무부, 민법 개정안…배우자 상속분 대폭강화 논란 예고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가 우선 받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학계 교수와 법조인들로 구성된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의 50%를 남은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는 방향으로 민법 상속편 조항을 개정하는 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해 9월 고령자 복지증진과 부부공동재산 기여분 보장을 위한 상속분 조정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민법 상속편에서 '법정 상속분'을 규정한 제1009조는 제2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하는 때에는 각각 직계 존·비속의 상속분보다 50%를 더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더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망한 남편의 배우자와 자녀 1명이 나눠 갖는 상속 재산의 비율은 1.5대 1이다. 자녀가 2명이면 상속분은 1.5 : 1 : 1이 된다. 자녀처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 분할한다.

하지만 개정위 의견대로 고치면 배우자에게게 상속 재산의 50%가 우선 주어지고 남은 절반을 다시 현행 상속분 규정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나누게 돼 배우자가 갖는 재산이 크게 늘어난다.

상속자가 아내와 자녀 1명일 때 상속분은 4 : 1 비율이 된다. 자녀가 2명이면 아내에게 71.4%가 돌아간다. 법무부는 2006년에도 상속 재산의 50%가 배우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법 상속편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전통이 강했던 국내 풍토에서 '배우자 상속 대폭 강화'를 반대하는 여론에 부딪혀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혼·재혼이 늘어나고 자녀가 1~2명에 불과한 가족도 많아지는 등 가족 형태의 변화 추세와 자녀의 기여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당시 안은 자녀가 1명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1대 1로 상속을 받게 되는 모순점도 있었다.

법무부는 "이달 중 개정위가 최종 의견을 제출하면 검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예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공청회나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 등을 거치면서 배우자 상속분을 대폭 강화하는 안을 둘러싸고 논란도 예상된다. /연합뉴스

전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손 잘 씻어야

질병관리본부가 2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주(12월 22일~28일) 외래환자 1000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15.3명으로,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인 12.1명을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3년간의 발생 경향을 볼 때 인플루엔자 유행기간은 6~8주간 지속되며 정점일 때는 유행기준의 약 5배까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입 가리고 기침하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설 연휴 열차승차권 호남·전라선 9·10일 예매

코레일은 설 연휴 열차승차권을 7일부터 10일까지 코레일 홈페이지와 역 창구에서 판매한다.

7일과 8일은 경부·충북·경북선 등의 승차권을, 9일과 10일은 호남·전라·장항선 승차권을 판매한다.

1인당 예매 매수는 12매(회당 6매 이내)로 한정했다. 서울~수원, 부산~삼랑진 등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은 예매대상에서 제외되고 예매 후 잔여석(입석) 승차권은 1월 14일 오전 10시부터 판매한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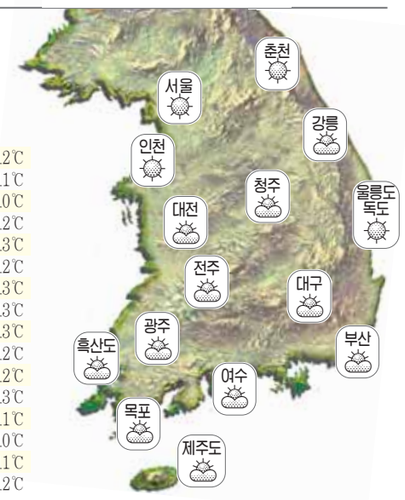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41분 해짐 17시 33분 | 달뜸 08시 46분 달짐 19시 53분

포근한 겨울

기온 높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다.

광 주	구름많음	1/12℃
목 포	구름많음	2/11℃
여 수	구름많음	3/10℃
나 주	구름많음	-2/12℃
완 도	구름많음	2/13℃
구 례	구름많음	-2/12℃
강 진	구름많음	-3/13℃
해 남	구름많음	-3/13℃
장 흥	구름많음	-3/13℃
순 천	구름많음	1/12℃
영 광	구름많음	0/12℃
진 도	구름많음	0/13℃
전 주	구름많음	-1/11℃
군 산	구름많음	-1/10℃
남 원	구름많음	-3/11℃
흑산도	구름많음	6/1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m
먼바다	동~남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m
먼바다	동~남동	0.5~1.0m

감기지수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높음	낮음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m
먼바다	북동~동	0.5~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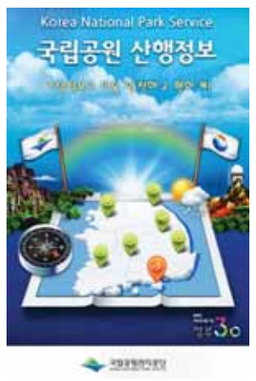
	밀물	썰물
목포	03:04 15:49	08:24 21:01
여수	10:36 22:42	03:56 16:3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4(토)	5(일)	6(월)	7(화)	8(수)	9(목)
날 씨						
최저/최고	2/8	-1/6	-2/5	-1/6	-1/4	-4/2

무등산 겨울산행 중 조난 걱정마세요

'국립공원산행정보' 앱서비스



무등산으로 겨울 산행을 갔다가 길을 잃을 때, 실시간 기상 정보를 알고 싶을 때 도움을 주는 앱이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무등산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조난 신고나 등산 코스 등을 알려주는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사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앱에는 산행시 출발지와 경유지, 목적지를 선택하면 차량 내비게이션처럼 경로를 안내해주는 '코스설정' 기능과, 길을 잃었을 때는 구조대에게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와 구조메시지를 전달하는 '조난신고' 기능도 갖췄다. 이 기능은 국립공원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이동거리에 따른 소모 칼로리를 계산할 수 있는 '트레킹', 자신이 다녀온 산의 기록을 저장하고 공유할 수는 '참여마당' 등 등산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능이 담겨있다.

다도해·한려해상 등 해상 국립공원에서는 풍향과 풍속, 수온, 파고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앱은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